

LOTTE Mart Home plus

광주 대형마트·아울렛 매출 年 7000억 ‘대박’ 지역사회 환원은 ‘찜땀’

‘매출액 대비 기부금’ 국감 자료
홈플러스 0.001%
롯데마트 0.02%
전체 기부금 70% 수도권 편중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7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도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엔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했지만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돈벌이에선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사회공헌 활동은 영세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재익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대형마트(점포수 10개)·아울렛

(약 2개) 업체들은 총 69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대형마트 5567억 원 ▲아울렛 1366억 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아울렛의 매출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모두 1681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사회기부금은 300만원(0.001%)만 내놨다. 롯데마트는 총매출이 2322억 원이었으나 기부금은 매출액의 0.02%인 5200만 원뿐이었다. 이마트는 전체 매출액 1563억 원 중 기부금으로 2억6100만 원(0.17%)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총매출 1366억 원을 기록한 롯데 아울렛은 기부금으로 1억1400만 원(0.08%)을 내놓는데 그쳤다.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이권사업과 영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렸음에도 정작 사회환원은 등한시하면서 “돈만 벌어들이는 진공 청소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부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부문 대기업들이 지난해 기부한 금액은 모두 46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에 기부한 금액이 262억원으로 56.8%, 경기도에 기부한 금액이 59억원으로 12.8%를 차지해 서울·경기권의 기부금이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이재익 의원은 “지역 상품 매입과 기부금 확대 등 대형 유통기업이 지방 경제 발전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부양 기피 ‘현대판 고려장’ ▶6면



추석 연휴 ‘나주 한바퀴’ ▶11면



KIA 내·외야 리빌딩
야기호랑이들 주전 노려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野 혁신위 칼날, 계파 수장들 겨누다

지도자급 중진들 취약지 출마·불출마 등 ‘살신성인’ 요구
기소만 돼도 공천 불이익·하급심 유죄 땀 공천 배제키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비리사건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조정대 의원 등 해당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고강도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의 부산 지역 출마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전직 대표들의 열세지역 출마 등 ‘살신성인’도 촉구했다. 이날 인적쇄신안은 당의 지도자급 인사나 중진을 정면으로 겨냥해 취약지 출마 내지 불출마, 공천 원천배제를 요구한 것이어서 당내에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희생을 요구한다”며 문 대표를 향해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고위원들에게는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 달라”며 멸사봉공의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2007년 대선에

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 대표를 맡은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의 살신성인 실천을 주문한 뒤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혁신위는 또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며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부적격 심사기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법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소 단계에서는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재욱 의원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비리 혐의의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위는 이어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행위”라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전정배·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정대 의원을 비롯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야권 연대와 통합 문제에 대해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혁신안과 혁신의 정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문화 가족 추석 베품시장

민족대명절인 추석(27일)을 나흘 앞둔 23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베품시장’ 행사에서 이주여성들이 옷·핀·휴대전화 케이스·가방 등 생필품을 사러 온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매각가 7228억 수용”

금호그룹 재건작업 ‘탄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금호산업 채권단의 매각 제시가격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호그룹 재건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3일 “채권단의 금호산업 매각 제시가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55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박 회장 측에 금호산업 매각가격을 7228억원으로 공식 통보했다. 채권단이 통보한 금액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50%+1주)에 해당하는 1753만8536주를 주당 4만1213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금호산업 지분 57.5%(약 195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5

월부터 박 회장 측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주당 5만9000원씩 총 1조218억원을 매각가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후 주당 3만7564원씩 총 6503억원을 제안한 뒤 지난 9월 7047억원을 다시 제안했다. 박 회장이 조만간 인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이달 30일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 체결하면, 박 회장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과 금호석유화

학·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추진 발표 후 약 6년만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최대 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이어 박 회장이 오는 12월30일까지 인수대금 7228억원을 완납하면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건작업이 큰 틀에서 마무리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10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100%), 아시아나개발(100%), 에어부산(46%)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